

합판에 그려진 유화작품의 보존과 복원-II

- 이중섭 〈서귀포의 환상〉

김주삼

호암미술관 문화재보존연구소

The Restoration and Restoration of oil Painting on Plywood-II

-" A Dream of Seogwipo by Jung Sub Lee"

Joo-Sam Kim

Ho-Am Art Museum Conservation Institute of Cultural Properties

19세기 건축 자재와 가구용으로 개발된 합판(plywood)은 기존 목판에 비해 휨이나 갈라짐과 같은 나무의 약점이 대폭 개선되고 또한 저렴하여 개발초기부터 적지 않은 화가들에 의해 유화의 지지체로 사용되고 있는 재료이다. 국내에도 이제창, 이중섭을 비롯한 많은 화가들이 이 합판을 이용하여 그림을 그렸다. 그러나 이 합판은 얇은 나무판을 서로 교차시켜 접착제의 접착력으로 붙여 놓은 형태이므로 이들 간에는 늘 어느 정도의 장력이 존재하게 된다. 만약 물이 나무판들 사이에 침투하게 되면 나무들이 수분을 흡수하고 팽창되면서 심할 경우 나무판들이 급속하게 분리되면서 들뜨고 갈라지는 피해현상을 초래하게 된다.

이 발표에서 언급하게 될 이중섭의 "서귀포의 환상"은 합판에 그려진 유화작품으로서 지지체인 합판이 물에 의해 변형되면서 물감층이 박락되고 들뜨는 피해를 입힌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손상을 겪은 작품의 복원작업은 우선 들뜨는 판들을 서로 재접합해주는 작업으로부터 시작된다. 들뜨는 판사이로 접착제를 효과적으로 침투시켜야 하고 또한 견고한 접착력을 유지해야하므로 접착제의 선택과 적용에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다양한 접착제를 비교 실험한 결과를 토대로 아크릴계 접착제인 Primal WS24과 Primal AC 33을 같은 비율로 섞어 주사기를 이용하여 침투시키고 압력을 가하여 접합을 완료하였다. 그 후 황변이 진행된 표면의 공업용 바니시를 제거하는 작업과 결손부위에 대한 색맞춤작업으로 복원작업을 완료하였다.